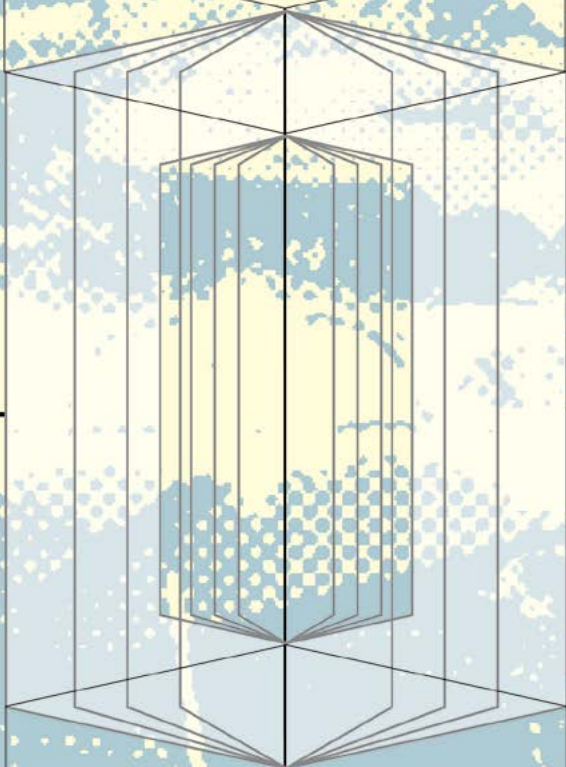


HO

아니

아니

HO



2020
도화가압장

호

수

원

공

2020
도화가압장

Contents

7	공연예술연습공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10	프로젝트 개요
16	기획위원단 이야기
33	참여자 이야기
34	프로젝트 과정
38	그룹별 작품 소개 (+ 인터뷰 / 리뷰)
40	수봉수봉수봉
62	무제
78	수봉하루
94	여백
112	프로젝트 리뷰
116	프로젝트를 마치며
120	프로젝트 참여 예술가
126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공연예술 연습공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이 문을 연 지 5년차를 맞이했다. 쓰지 않는 자재 보관 용도로 사용되었던 상수도사업본부의 오래된 창고를 리모델링해 공연예술연습공간으로 사용하고 사업을 제안했던 때가 2014년이었다.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3자간 협약으로 도화2가압펌프장을 공연예술연습공간으로 변화시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다. 안정적으로 해당 공간이 운영되며 연간 이용 예술가 수는 18,443명(2019년 기준)에 달한다. 이러한 공간의 사용률을 보면 그동안 지역의 공연예술가들의 공연연습공간으로 얼마만큼 활발히 활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창작지원부 소속으로 공연예술연습공간이 자리 잡으면서, 공연예술연습공간이 지역의 공연예술 생태계 안에서 공간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어떤 새로운 역할과 미션을 찾아 그동안의 역할을 넘어 새로운 5년을 기약해볼 수 있는 사업이 필요했다.

안정적으로 시설을 대관하고 이용하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기능이었으나, 그럼에도 이 공간을 공연예술가들이 어떻게 더 자주 찾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필요로 할지를 궁금해 하며 공연예술가들을 개별로 만나 의견을 묻고 사례 조사를 실행했다.

인천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무엇일까? 여러 예술가들을 만나 물었을 때 들었던 답은 “각기 다른 공연예술단체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지 않는다.”, “어떤 단체가 지역에서 활동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전과 같이 큰 단체에 소속되어 각자의 활동을 홍보하고 교류하는 형태가 더 이상 유의미하기 어려운 시대의 반영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이 인천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가 개개인들을 만나는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 간의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소로 자리 잡아보자는 것이었다.

이 기대감과 함께 코로나19라는 큰 시련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었다. 공연예술연습공간의 사업비는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었고, 2020년부터는 시비의 비율이 더욱 커진 상황이었다. 이러한 예산 구조 안에서 인천문화재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재단의 예산을 편성했다. 개관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처음 시도는 공연예술 부스마켓 등으로 구성하고 라운드 테이블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들로 마련해 지역의 예술가·단체 간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공연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의 접점을 찾아가자는 취지였다. 당연히 공간을 가득 채우는 페스티벌 형태를 구상하고 시작된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본 사업의 진행 방향을 점검하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진 전문가 분들을 기획위원으로 모시고,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업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포지셔닝,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행사를 꾸려내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사업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역 성격과 연습공간 정체성을 감안한 해당 사업의 특색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뒤이어 담겨질 페이지에서 그 현장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담았다. 과정에서 이뤄진 연속된 고민들 속에서 연습공간의 역할과 기능의 확장성 등을 탐구할 수 있었다. 긴 고민의 길을 기꺼이 함께 마련해주신 기획위원분들과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을 즐겁게 걷고 즐겨준 참여 예술가들께 감사드린다.

새로운 실험들로 이뤄진 프로젝트의 완결성과 작품성을 논하기에는 코로나19라는 제약이 컸다. 그럼에도 온라인으로라도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시간들과 그 속에서 느낀 유의미한 부분은 이번 사업의 결과물로 충분히 남았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해당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더 많은 공연예술가들이 공연예술연습공간을 인천의 공연예술 생태계 내 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연예술연습공간의 리딩룸에 남겨진 가압장의 펌프는 아직 살아있다. 언젠든 파이프를 연결하면 물이 쏟아질 준비가 되어 있다. 공연예술연습공간도 그 모습과 같이 존재하려 한다.

2020. 10.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부



● 프로젝트 명

● 2020 도화가압장

● 기획위원단 운영

● | 회차별 진행 |

- 월 2회 정기 기획회의의 진행 /

프로젝트 추진 방향 및

진행 전반에 걸친 이슈 논의

▷ 1 차 (2020. 5. 21.)

행사 목적 및 포지셔닝

▷ 2 차 (2020. 6. 4.)

공간 거점의 지역리서치 창작물

제작 형식 제안

▷ 3 차 (2020. 6. 18.)

공간을 정의하는 키워드 도출

▷ 자문회의 (2020. 6. 26.)

지역 예술가 현장의 목소리

▷ 4 차 (2020. 7. 2.)

리서치 프로젝트 세부 논의
(<공무도하 프로젝트> 리뷰)

▷ 5 차 (2020. 7. 16.)

참여자 모집방식, 프로젝트 주제 등 논의

▷ 6 차 (2020. 7. 30.)

리서치 워크숍 구성 및 기타 진행 논의

▷ 선정심의 (2020. 8. 19.)

참여자 선정 심의 위원 회의

▷ 온라인 긴급회의 (2020. 8. 2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회의
리서치 워크숍 온라인 전환 결정

▷ 7 차 (2020. 8. 27.)

그룹핑 진행

참여자 모집

프로젝트 참여자 공모 및 선정

| 모집 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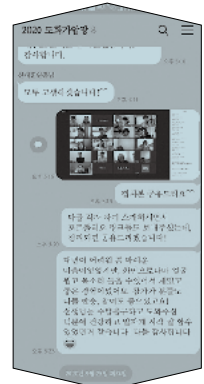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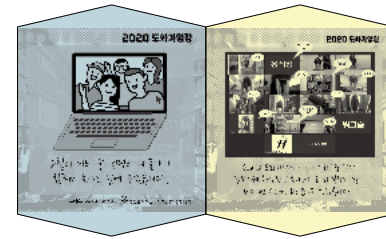
2020. 7. 27. ~ 8. 16.

| 선정심의 회의 |

2020. 8. 19.

| 선정자 발표 |

2020. 8. 21.



공간기반 리서치 워크숍_온라인

'수봉공원'을 주제로 한 장르별 공간기반

리서치 워크숍 진행 /

참여자 대상의 워크숍으로 전 과정 참여

| 워크숍 일정 |

2020. 8. 24. ~ 9. 2.

| 워크숍 진행 |

▷ 워크숍 01 (2020. 8. 24.)

온라인 수봉공원: 참여자 네트워킹, 김형민 기획자

▷ 워크숍 02 (2020. 8. 25.)

익숙하지 않은 장소를 사유화하는 시각예술의 변주_노기훈 작가

사운드 스케이프, 공간과 장소의 기록1_조은희 작가

▷ 워크숍 03 (2020. 8. 26.)

구성 대본 제작 워크숍_전강희 드라마터그

몸짓으로 읽고 그리는 수봉공원: 공간을 읽는 본능_송주원 안무가

▷ 워크숍 04 (2020. 9. 2.)

사운드 스케이프, 공간과 장소의 기록2_조은희 작가





그룹 프로젝트

-

그룹별 협업·창작의 시간

| 일정 |

2020. 9. 1. ~ 9. 25.



중간 만남_ 온라인

-

그룹 간 중간 작업 공유의 시간 /

각 그룹의 작업 과정과 작품 방향 등 공유

| 일정 |

2020. 9. 11.



워킹 워크

-

창작 현장에 필요한 공연예술연습공간

연습실 대관 지원

| 일정 |

2020. 9. 21. ~ 9. 25.



결과발표 공유회

-

그룹 프로젝트의 결과 작품을

공유하는 시간 /

공연 시, 조명·음향장비 기술 지원,

사진 및 영상 촬영 진행

| 결과발표 공유회 일정 |

2020. 9. 26.

| 그룹별 인터뷰 촬영 |

2020. 9. 23. ~ 9. 26.

<2020 도화가압장>은

-

지역 공연예술가들의 교류와

네트워킹에 중심을 둔

창작 프로젝트로서 연령과 장르,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협업을 지향하며 시작했다.



기획위원단 이야기 01



신재훈

극단 작은방 연출

-
글을 쓰고

연출하고 있다.

주춤하던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 지난 8월이었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도 여름이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방역의 성과로 코로나 19의 완전 종식의 바람도 잠시나마 있었던 차였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 19는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단계냐, 3단계냐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하루하루의 일상이 달라지던 때였다. 그러한 때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공간기반 프로젝트 <2020 도화가압장>이 놓여 있었다.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공간 기반 프로젝트 <2020 도화가압장>'은 많은 경계의 언어를 품고 있다. 수압을 높여 고지대로 물을 길어 올리는 '가압장'과 이른바 수도 동맥이라 불리며 서해에서 서울로 뻗은 경인로를 따라 펼쳐진 '도화동'은 인천이라는 공간의 일부로

오랜 시간 동안 주변과 중심이라는 경계에서 그 의미가 피어나고 있었다. 인천이라는 곳이 서울과 대비되어 ‘지역’이 아닌 ‘지방’으로, 중심의 위상에 자리 잡은 것을 지역의 정체성으로 삼은 것은 어쩌면 공간이 품고 있는 정치경제학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협업으로 행동과 생성의 언어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코로나19의 상황에 놓여 공공기관의 역할과 창작자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도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

주관적인 평가지만, 8월은 달관이라면 달관일 수 있는 냉정한 현실 인식과 일종의 무기력함이 공연 예술계에 생겨나던 시기였다. 쉽게 말해 지쳐가는 상황이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몇 번의 기복이 있었고 기복에 따라 공연의 여부와 계획이 출렁거렸다. 코로나19의 상황을 헤쳐 나가는 개별적인 노력이 벌어지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발을 맞춰 공연 진행이 이루어진 것은 이런 흐름을 방증한다.

<2020 도화가압장>이 되새겨야 할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가치관을 우선시 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이다. <2020 도화가압장>은 리서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분야의 창작자들과 협업을 진행하는, 이른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는 프로젝트였다. 올해 리서치 공간으로는 수봉공원이 제안되어 진행되었는데, 공간을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사운드와 무용, 그리고 이야기 워크숍 등이 진행되었다. <2020 도화가압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남의 연속이었으며, 결과 발표를 위한 과정도 새롭게 발견한 감각을 나누는 만남의 장이었다.

흘러지는 것이 연대의 방법이고, 사랑한다면 헤어져야 한다는 나름의 격언이 동시대를 반영하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2020 도화가압장>은 프로젝트의 존폐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기획위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프로젝트의 주최 측은 공공기관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내려야 했는데, 이미 지원을 통해 참여자가 선정된 상태였기에 계획과 다른 결정은 혼란을 줄 수밖에 없었다.

<2020 도화가압장>은 기존의 계획을 지켜야 하는 모든 부담을 덜어내고, 안전한 방법으로 프로젝트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애써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워크숍은 줌(Zoom)을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결과 발표는 관객을 만나지 않는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다소 어색한 방법이었지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치, 그 생각을 표현함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창작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한 노력은 이후에도 되새겨야 할 평가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뜻밖의 수확은 처음에 목표한 다양하고 새로운 감각이 또 다른 방식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2020 도화가압장>을 한 마디로 기록한다면, ‘도화동에서 작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쓰고 싶다.

기획위원단 이야기

02



신 아 리

극단 신아 대표

-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연출하고 글을 쓴다.

1. 미사육구

예술가의 눈은 아이의 눈과 같다고. 아이의 눈은 어떠한 사물을 감지하고 언어가 아닌 감각으로 느낀다고. 하지만 요즘 들어 나는 켕하고 흐리멍덩한 눈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퇴행의 길을 걷는 것. 사람은 어쩌면 태어나는 그 순간이 가장 완벽한 순간인 것도 같다는 생각. 연대라는 건 지옥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데 내가 연대하지 못하는 지금, 이곳은 천국이 분명하다는 알팍한 긍정으로 애쓰던 하루. 쓸모없음은 생각보다 전염이 강하여 나를 포함한 주변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쓸모를 잃어 가던 찰나, 축제 기획 연락을 받았다. 이것은 구원인 것인가!

2. 축제의 요정

애정하는 도시 인천, 애증하는 공연 예술. '축제'라는 단어의 연상 때문인지 일말의 기대감으로 증폭되었다. 그러니까 (순전히 개인 취향의 영역이지만) 좀 더 참신하고 뚱고발랄한 네트워킹 파티에 대한 열망과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다. 춤추고 노래하고 신이나는 축제를 기획한다는 멋, 모름. 축제는 모름지기 섹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습하기도 전에 코로나와 언택트. 뭣도 모름. 이 와중에도 창작을 해야 하나. 결과를 내야 하나. 발표는 어떻게 하나. 하나. 뭐?! 같은 것. 그럼에도 여러 차례 진행된 기획회의에서 우리는 의견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 2016 <도화가압장>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것이 계기가 되어 공간의 역사와 의미를 발견하고 '펍핑'이라는 주제의식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공간 탐색과 활용, 네트워킹 워크숍, 온라인 회의와 온라인 콘텐츠 등 생각했던 외향적 축제의 형식과는 멀어져갔지만 공연예술 작업의 유효, 어떻게, 무엇으로 만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며 내실을 갖추려 했다. 차츰 성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방향을 잡아갔다. 결과보다는 사색이 필요했고 지금을 견딜 만한 뽀뽀함이 필요했다. 기다리는 것도 현재진행 중이라는 것, 어디쯤 위치하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 심상을 공유하고 어떻게 상호작용되는지 등의 화두들이 오고 갔다. 그리고 아, 어떻게 펼쳐놓을지! 사실 그것이 가장 큰 화두였다.

3. 오! 수봉

첫 번째 테마로 선택된 수봉공원은 이방인과 현지인의 개인적 감상과 공간의 시대성도 존재하지만 산책의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억의 놀이동산, 동심의 아이 콘이었던 수봉공원이 화려한 조명, 야경이 아름다운 'I ♥ MICHUHOL'이라는 수려한(?) 옷을 입게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가시적인 것을 넘어 다른 누군가는 어떠한 것을 떠올리고 품게 될지 궁금했다.

4. 비극적이지만은 않은 현재진행형

본 사업의 기획자이자 타 사업의 지원자이기도 한 나로선 지원자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빈틈이 많은 목표를 세웠던 것이 아닌가 반성도 해본다. 결과물로 향하는 작업의 관성에 유의해야 했고 발표라는 부담을 덜어야 했다. 개인 작업이 공동의 작업으로 침범하고 흡수하는 협업이라는 것을 단시간에 이루어낸다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비대면을 타계하여 작업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봉공원'이라는 테마를 각자 체험의 순간으로 만나 사유와 시각의 터널을 지나 다양한 공간적, 형식적, 장르적 시도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각자의 바라보기가 뭉치고 덧대어져 무한의 방식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하고 존재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여러 가지의 숙제를 남긴다. 무대로의 완성을 추구해야 할지, 영상으로의 완성을 추구해야 할지, 이 둘을 아예 분리시켜야 할지에 대한 생각과 영상, 무대, 조명 등 기술 창작의 영역에서 참여자들의 작업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작업 초반부터 구성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기록되어 앞으로 보다 창작자를 향한, 탐색과 사색, 잉여의 가치 등을 재발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시발이 되길 기대해본다.

5. 끝으로 앞으로

계란 반숙은 물이 끓기 시작해 6분 30초 정도. 나는 그 정도의 삶은 계란을 좋아한다. 반숙미. 덜 익어 살짝 흐르는 노른자의 그라데이션은 색도 맛도 너무나 황홀하다. 우리는 그것을 취향이라고 부른다. 호불호를 떠나 내 입맛에 맞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혼밥보다는 함께 먹는 밥을 좋아하는 나로선 지금껏 나부터 즐거운 작업을 원하는 동시에 함께 즐거운 작업이 되길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동일한 공간에서 다른 생각을

나누며 그 사이 비슷한 것들을 긁어 모아 조금씩 나아가는 일. '이 일이 참 괜찮은 일이구나' 하고 새삼 생각하곤 했다. 혼재된 언어와 감각들은 어느덧 제자리를 찾고 자기가 할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야 만다. 걱정하지 마라. 최악의 것은 늘 있어왔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었더라. 어느 좋은 날. 다시 또 만나기를 고대하며 또다시 혼잣말.

기획위원단 이야기

03



조 은 희

작곡가 / 사운드 아티스트

-

사운드, 전자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의 매체 음악을 만들고 공연을 만들어왔다. 음악과 노이즈, 서양 전통음악과 한국 전통음악, 사운드 스케이프와 전자음악을 유연하게 엮어 내는 방식을 지향해왔으며 연극, 무용, 영상, 미술, 서커스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음악을 작곡, 연주해왔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간과 장소성에 주목하는 '사운드맵 프로젝트'를 기획, 공연해오고 있다.

1. 기획 참여 및 과정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에서 자문으로 의뢰를 받았을 때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함께 참여하는 기획위원분들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공간 활성화에 대해 함께 담론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과정을 마치고 돌아보니 오히려 참여하며 내가 배운 것들이 더 많았던 프로젝트였다. 특히 과정 중간에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서 빠른 전환과 대책이 필요했는데, 사업을 취소하지 않고 온라인 워크숍, 온라인 중간 만남,

최종 발표 형태도 영상 제작으로 대신하는 등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식을 함께 고민하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인상 깊다. 이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고민들이었고, 무엇보다 참가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었기에 가능했다.

2. 리서치 워크숍

사운드 스케이프 워크숍을 2회에 걸쳐서 진행했다. 기관 및 여러 공간에서 사운드 워크숍을 진행한 적이 있었으나 온라인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온라인(Zoom)에서의 사운드 워크숍은 대면 워크숍보다 훨씬 준비할 것이 많았다. 나는 현장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며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데 온라인 워크숍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에 ppt 자료를 더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함께 한 참가자들은 이미 본인의 음악 세계가 뚜렷한 이도 있었고, 사운드를 활용한 작업을 하고 있는 이도 있었다. 그렇기에 워크숍 참여도는 대체로 적극적이라고 느껴졌다. 1회차 워크숍은 사운드 스케이프 소개 및 레퍼런스 공유를 했고, 2회차 워크숍을 위해 참가자들은 개별적으로 수봉공원을 다녀와야 했다. 모두 함께 했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각자 더 깊게 고민하고 소리를 감상할 수 있기에 따로 가서 소리를 채집하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서로의 녹음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각자 집중해서 본인이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소리를 녹음했기에 '수봉공원'이라는 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른 소리를 채집한 것이 인상 깊었다. 또한 사운드 스케이프는 몇 개의 테마로 묶을 수 있었는데 자연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채집한 참가자와 소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상상력을 발휘한 참가자, 소리를 들으며 받은 영감으로 작품의 모티브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영상과 함께 기록한 참가자도 있었다. 2차 사운드 워크숍은 이렇게 각자 녹음한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서로의 다름과 개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3. 결과발표회 소감

나는 9월 26일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에서 두 그룹의 촬영을 지켜보았고, 다른 두 그룹은 제작하여 보내준 영상 결과물을 보았다. 모두 함께 모여 결과발표를 나눌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지만 주어진 상황에 맞게 결과물을 제작하며 나뉘는 고민이 눈에 훤히 보였다. 아무래도 함께 모여 발표회를 진행했다면 공연이라는 형식이 많았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으로 제작을 하면서 오히려 다양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고, 코로나로 변수가 많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주어서 기뻐다. 이 프로젝트를 함께 고민해준 참가자와 기획위원단 선생님들, 프로젝트 전체를 기획하고 조율해 준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에 감사を 전한다.

기획위원단 이야기

04



김형민

삶이축제다 콘텐츠 팀장 /
신촌거리예술축제 총감독

-

전)서울프린지네트워크
낮에는 즐거운 콘텐츠를 기획하고,
밤에는 맛있는 식사를 기획한다.

코로나19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상의 많은 부분이 바뀐 2020년.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래 해왔던 기획자라는 본캐(본래의 캐릭터의 준말) 대신에 문화예술과는 전혀 무관한 부캐(부캐릭터의 준말로 본래의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로의 삶을 보내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해 2025년 인류가 영위할 비대면, 온라인이 주가 되는 일상을 5년 일찍 맞이하였다고 한다. <2020 도화가암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참여 예술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지도 모르는 낯선 만남의 방식과 창작을 경험해야 했다.

참가자들은 뮤지션000, 무용수@@@이라는 본캐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나마 부캐로 '이상한 수봉나라'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처음 기획위원들이 모였을 때 세웠던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천 지역을 주 거점으로 활동하는 젊은 창작자들을 만나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들의 작업을 알리는 마켓을 여는 것이었다.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를 초청하는 아트마켓이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의 성격이 가미된 풍경을 그렸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존 오프라인 형태로의 진행은 무리가 있다는 내부 의견들이 나왔고, <2020 도화가압장>이라는 프로젝트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기획위원 및 재단 직원 담당자들이 고민했다. 당초 계획했던 형태의 페스티벌이 불가하다면 우리는 젊은 예술가들과 어떠한 만남을 가질 것인가. 크게 3가지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다.

1. 인천 지역의 젊은 창작자들이 함께 네트워킹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자리
2. 여러 가지 예술 장르 워크숍을 통해 타 장르에 대한 이해와 감각 키우기
3. 타 장르 창작자와 그룹을 이뤄 협업의 경험을 하는 것

대면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프로그래밍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결국 오프라인 모임을 취소하고 전면 온라인 진행으로 방향성을 잡고, 줌(Zoom)이라는 화상회의 어플을 매개체로 예술가들을 만나게 되었다.

창작물 결과 발표 촬영하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바라보며 이후 각 조별 영상물을 보며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놀랐다.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 자체도 큰 도전이었을 텐데 다른 예술의 문법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없는 기획은 없지만 <2020 도화가압장>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 D-Day가 다가올수록 코로나19의 확진자는 점점 증가했고, 세상이 우리 보고 포기하라고 강요

하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더욱 "Art must go on"을 말했지만 소리만 외치고, 부담은 참여 예술가들에게 전부 떠넘긴 것 같아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다 마스크가 씌워져 있고, 50일 내내 비가 내렸던 유난히 이상했던 2020년 여름. '수봉공원'이라는 공간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만나진 않고,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 대면하진 아니하는... 이상한 수봉나라에서 나는 새로운 방식의 연대를 보았다.

기획위원단 이야기

05



송 주 원

일일댄스프로젝트 대표 / 무용가

-

안무가이자

댄스필름 감독이다.

인천문화재단의 초대로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을 알게 되고 <2020 도화가압장>의 무용 분야 기획위원 의뢰를 받았다. 코로나19로 공연예술 창작 환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의 공간 활성화 및 도화동을 중심으로 한 예술가들의 만남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업 활동 프로젝트를 위하여 무용, 연극, 음악, 공연기획 전문가들의 모임이 만들어졌다.

5월부터 9월까지 격주로 온·오프라인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며 사업이 전면 취소되는 타 기관 사업들과는 달리, 참여 예술가들과 기관의 입장에서 무리가 없는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기관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수많은 공연들이 무산되는 공연예술 시장의 현황에서 수많은 논

의 끝에 '수봉공원' 리서치 작업 및 협업을 통한 나눔과 맺음의 영상기록 방식으로 진행이 결정되었고 이는 차년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프로젝트의 시도로 진행되었다. 인천시 도화동만의 특징과 이곳에 필요한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참여 예술가들을 위한 모집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남과 워크숍, 결과 발표 등 현재 공연예술창작 환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식을 함께 고민하였고 함께 이뤄나가는 소중한 시간을 나누었다.

무용 분야의 장소특정형 작업 경험을 토대로 온몸으로 수봉공원과 접촉하기 위해 공간을 몸으로 읽고 표현해보는 움직임 워크숍을 제안하였다. <몸짓으로 읽고 그리는 수봉공원 - 공간을 읽는 본능/ 장소특정형 워크숍>을 준비하였으나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장소의 사진을 공유하고 공간을 상상하고 몸짓으로 그려보는 워크숍을 대안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4시간의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강의와 실행을 병행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이었지만 이를 활용하여 장소를 기반으로 무용 매체를 영상물로 창작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안무가가 감독하기'와 '사진으로 만난 수봉공원 걷기'를 진행했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현대무용 기반의 기초 단위의 움직임 워크숍을 통하여 신체의 가동성과 가능성을 재인식하는 시간을 가진 뒤, 도화동의 오랜 상징인 수봉공원을 사진으로 탐사한 후 참여자들은 공원 내 흐르는 시간을 몸짓으로 상상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제안하였다. 그 장소의 성격, 형태, 냄새, 촉각, 역할 등에 반응하는 본능적인 몸짓을 발견하고 현실 속의 가상의 장소를 관찰자에서 행위자로 공원 내 각 장소의 체험을 선택하고 몸짓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제안하고 너무도 아름답게 함께 하였다. 비대면의 상황에서 상상 속의 수봉공원을 온전히 몸으로 만나고 읽어보는 장소특정형 움직임 워크숍을 통하여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접촉하고 접촉할 수 있는지 각 분야의 참여자들

과 함께 발견하고, 체험하고, 이야기 나누고, 실행하였다. 처음 온라인 움직임 워크숍을 진행하며 각 참여자들의 방안에서 촉발되는 엄청난 에너지의 무브먼트 가능성과 가족과 고양이가 함께하는 진풍경을 만나게 되는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플랫폼을 경험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돌입하면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공간 일대를 탐색하며 제한된 일정과 상황 안에서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지만, 각 그룹별로 다양한 키워드를 발견해 제시하고 각자의 프레임으로 표현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응원하였다.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킹, 지역기반 조사, 예술적 영감과 담론을 공유하는 프로세스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당초의 계획이 반영된 기대를 넘어서 결과물들을 만났다. 9월 26일 촬영 당일에는 오랜만에 블랙박스를 찾았고 움직임 워크숍에서 무브먼트의 단초를 가져왔다는 한 팀의 촬영 과정에 협력해 조명과 스페이싱, 카메라 위치 등을 함께 바라보고 경험을 통한 응원과 조언을 보냈다. 건강한 에너지로 수봉공원을 산책하는 그들의 시선과 해석을 몸짓으로 말하는 퍼포머들의 플레이를 보며 '역시 공연은 라이브지' 하는 생각이 더욱 더 강력하게 찾아들며 이 멋진 공연을 모두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매우 아쉬웠다.

올해 내내 지속적으로 큰 변화를 갖는 환경을 마주해야 하는 창작자와 관람자에 대한 고민과 단기간에 아웃풋을 만들어 내는 작업보다 장소를 만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중장기 리서치를 통해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형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호흡이 필요하며 비대면의 시대에 더욱 중요하게 작동하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공유하는 플랫폼이자 지역 기반의 네트워킹과 함께하기를 지향하는 인천공연예술습공간 <도화가암장>의 행보와 미래가 매우 기대된다.

참 여 자

01

프로젝트 과정

02

그룹별 작품 소개

이 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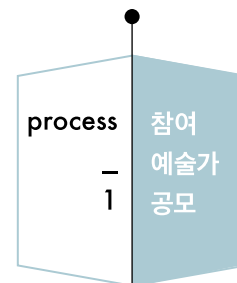
프로젝

01

로트

과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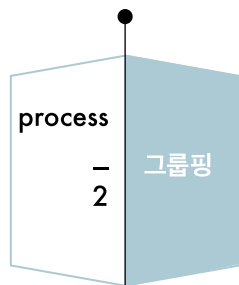


기획 단계에서 해당 사업을 어떻게 꾸러갈지 고민하던 때, 여러 차례의 회의와 사례조사

등을 통해 기획위원들과 지역 예술가의 공통된 목소리를 들었다.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창작자 간 교류의 부재, 타 장르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이 도드라졌고 이는 <2020 도화가압장>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이 지역에서 6년을 지내온 공연예술연습공간이 단순 연습실 대관 지원의 역할을 넘어서 지역 예술계 안에서의 새로운 사명과 정체성을 찾고자 지역 기반의 창작 프로젝트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이로써 사업의 방향성은 '협업', '네트워크', '공간기반'으로 굳혀졌다.

공모 단계에서도 이러한 사업 색깔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고자 노력했다. 공모 기간은 약 이십 여 일. 신청은 6개 단체, 개인으로는 20명이 지원하였고 그 중 단체와 개인을 합쳐 총 17명의 창작자가 선정되었다. 추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포기한 2명을 제외한 15명이 최종적으로 함께하게 되었다.

참여 예술가 모집은 신청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신청서는 창작자 본인이 타 예술가와의 협업에 대한 의지와 '공간기반의 창작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이 모두를 아울러 기획 의도와 지향점을 함께하는지를 물었다. 참여자 모집 신청서에는 이런 질문도 있었다. "<2020 도화가압장>은 당신, 또 함께하는 동료 예술가에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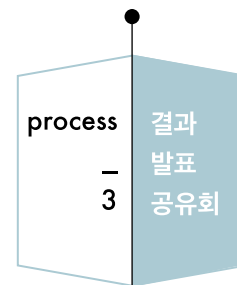


여러 차례 기획 회의를 거쳐 어떻게 창작자
개개인의 작업을 묶을 것인가를 고민했다.

워크숍 첫 만남의 날, 간단한 대화와 그동안의 본인 작품 소개 자료와 영상 링크 공유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고, 이후 본인이 협업하고자 하는 상대 창작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여러 방향으로 꽃힌 사랑의 작대기를 최대한 조합하여 그룹을 구성했다. 기획 단계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프로젝트의 주요 지점인 '장르 간 네트워킹과 협업'에 초점을 맞추면
서 초반의 의도를 잊지 않도록 했다.

그룹은 총 4그룹. 세 명에서 많게는 다섯 명으로 꾸려진 이 작고 한시적인 프로젝트 그
룹의 시너지가 궁금해졌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호기심만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주어진 한 달 동안 어떤 모습으로 함께 호흡할지 기대감이 컸다. 결과보다는 과
정을 중시하며 그룹 내·외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본인의 작업 과정을 소개하고 나누
면서 같이.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왔다.



코로나19가 사그라지기를 바랐지만 확산 추
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거세어졌고, 모두가

염원하던 오프라인 만남은 불가능했다. 결과발표 공유회라 명명했지만 '결과발표'보
다는 '공유회'에 더 큰 의미가 있었던지라 참여자 모두 오프라인 만남의 자리를 고대했
으나, 애석하게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공유하는 자리는 다소 위험하다 판단되었다.
다른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낼 필요가 있었다.

그룹별로 창작한 작품은 형태가 각각 상이했는데, 영상으로 제작된 작품이 2건, 공연화
가 필요한 작품이 2건이었다. 영상필름으로 제작된 결과물은 해당 일정까지 메일로 작
품을 제출했고 무대가 필요한 작품은 미리 블랙박스 형태로 꾸며놓은 공연예술연습공
간의 대연습실을 활용하여 작품을 발표했다(이 또한 무관중 공연으로 영상촬영을 진행
했다). 시간대를 나누어 그룹별 공연 무대를 가졌고 실제 공연 현장과 다를 바 없이 무
대, 음향, 조명, 영상 촬영 등 모든 기술적 장비를 갖추어 공연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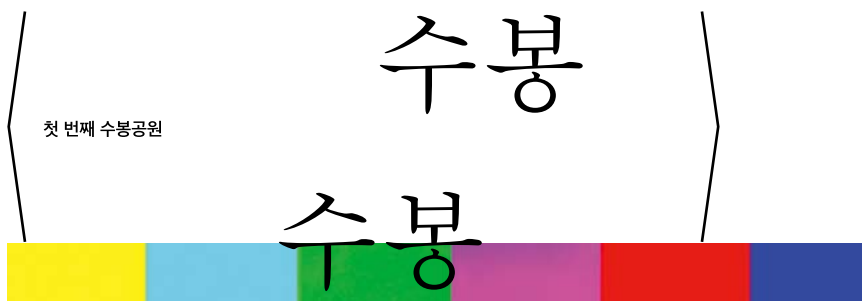
그 룹 별

02

작 품
소 개

공통 주제

수
몽
공
원



수봉



| 그룹 명 |

수봉과 임호양송이

| 참여 예술가 |

송유경, 양승욱, 이권형, 임정서, 허호

| 작품 명 |

수봉수봉수봉

| 작품 길이 |

00 : 15 : 18

| 진행 장소 |

각자의 작업실, 수봉공원

| 작품 형태 |

영상

| CREDIT |

<3D 수봉공원> 영상_ 송유경

<수봉공원 괴담> 영상_ 양승욱

사운드 제작_ 이권형

<겹겹이 쌓인 땅> 영상 최종 편집_ 임정서

<수봉 회화>_ 허호

목소리 및 영상 출연_ 노다혜

| 작품 내용 |

작가 개인이 경험한 가상과 실재 수봉공원을 개인 작업으로 생산하고, 이를 음악과 영상의 틀 안에서 재구성 및 재조합하여, 가상의 “수봉공원”을 재창조한다. 그룹 협업의 결과물은 약 15분 영상 편집물로 온라인으로 릴리즈되어 발표된다.

수봉공원은 과거에 물의 땅이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과 주안동을 경계로 한 수봉산을 중심으로 한 공원이다. 바다를 떠돌다가 왔다는 수봉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수봉공원의 물의 신화를 토대로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으로 가짜 공원을 만든다.

수봉공원에 관한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을 모아 수봉공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클립 영상들에 자막을 넣어 영상을 제작한다.

한 평지 안에 물려있는 기념비들, 몇몇 기념비는 상세 설명도 알 수 없고 사람들에게 관심 대상도 되지 않는다. 기념비는 사실 어딜 가나 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기념비보다 인공폭포 앞에 있는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오히려

기억에 남았다.

세월의 변화와 무엇이 제거되고 남아있는지, 수봉공원의 요소들을 선택의 잔해로 보고 '점점이 쌓인 땅, 수봉'을 담아보고자 했다. 이는 다시 협업 작가들의 아이디어와 함께 중첩해 하나의 영상으로 완성시켰다.

| 작품 배경 및 목적 특이사항 소개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조사에 제한이 있는 시기였기에 가상에 더욱 초점이 맞춰졌다. 가상 수봉공원을 디지털로, 영상으로, 개념으로 만들어보려고 의견을 모았고, 실재하는 수봉공원과 가상의 수봉공원이 만나는 지점과 괴리감을 다뤄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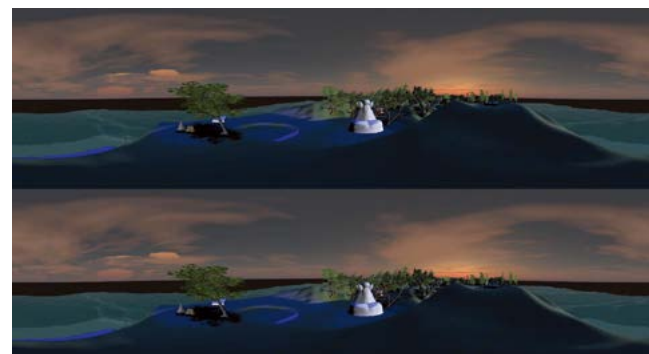
진짜 공간에 대한 개인의 이야기와 가짜 괴담, 신화적인 이야기를 충돌시키고, 인터넷 상에서 건축 구조물과 신화적 이야기 속 실제의 수봉과 겹에 주목하며, 가상 수봉을 만들었다. 가상과 현실이 중첩되는 시대 속에 탄생한 가상 수봉도 그저 하나의 진짜 수봉공원이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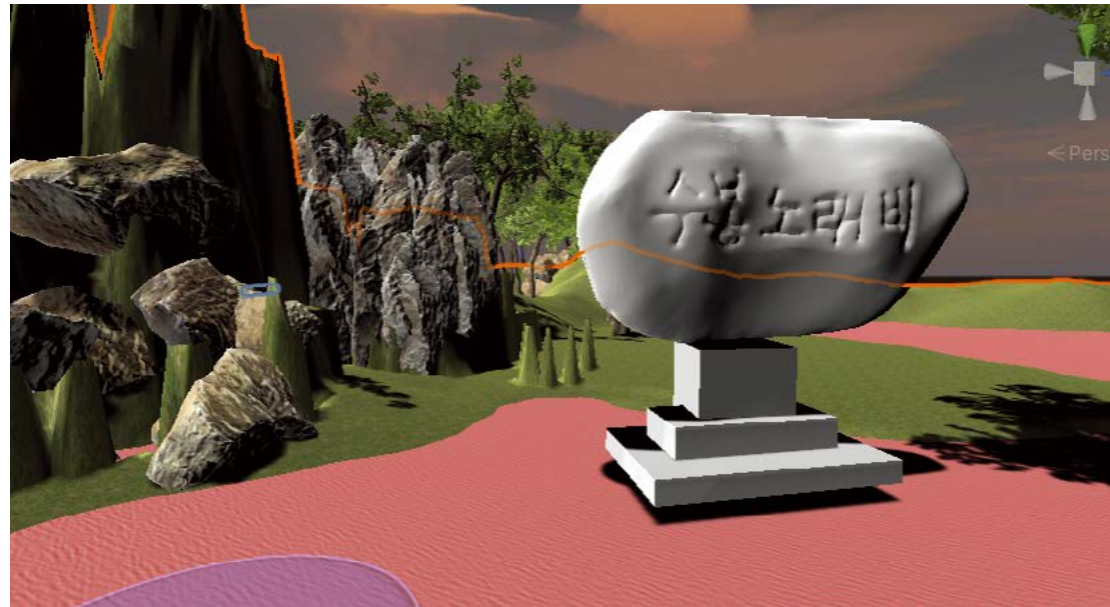
그 공원에는 여러가지의 등산로가 있는데 평탄한 나선형으로 감아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중간에는 직방인 108계단이라고 불리는 계단이 있었다고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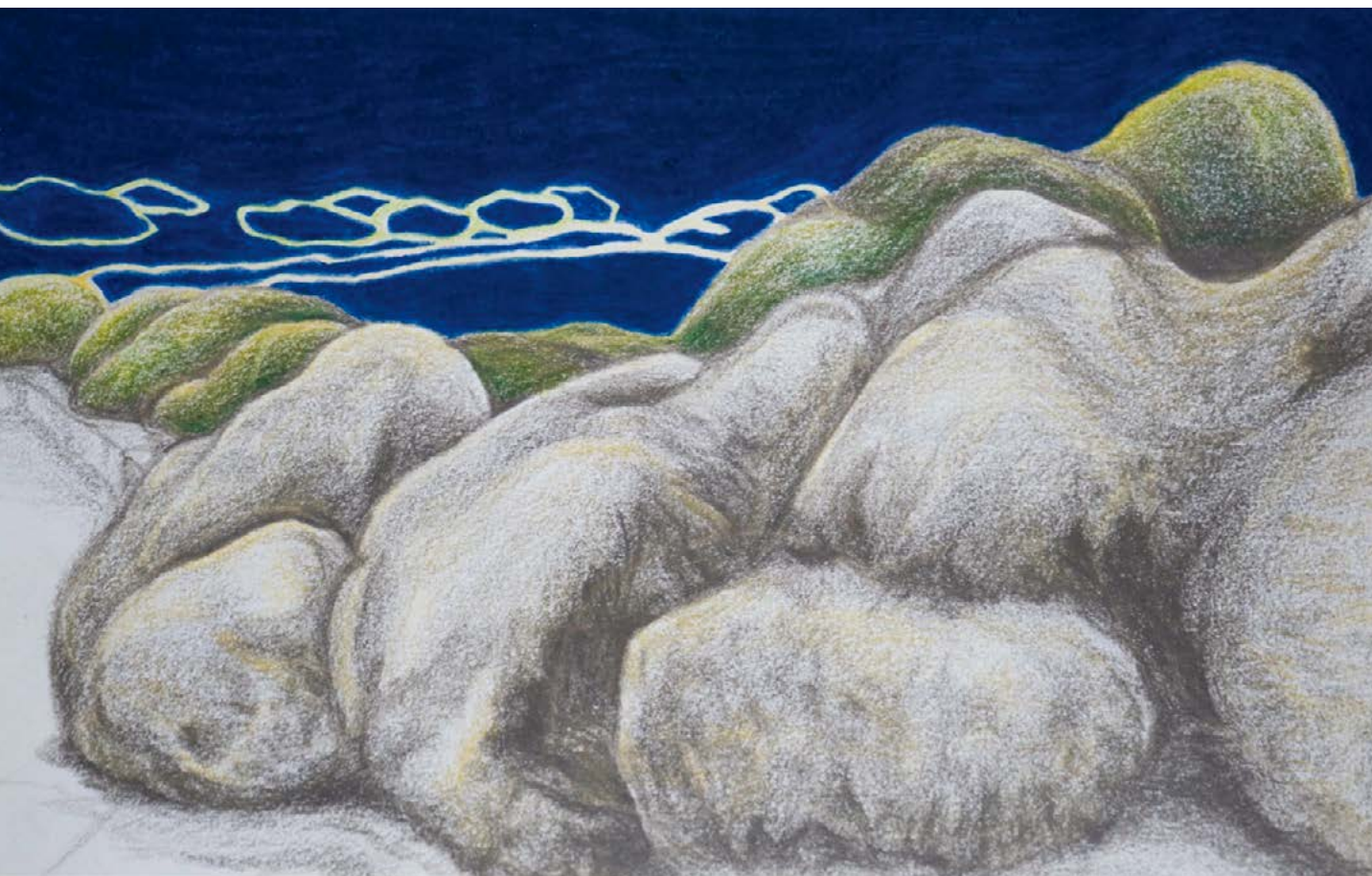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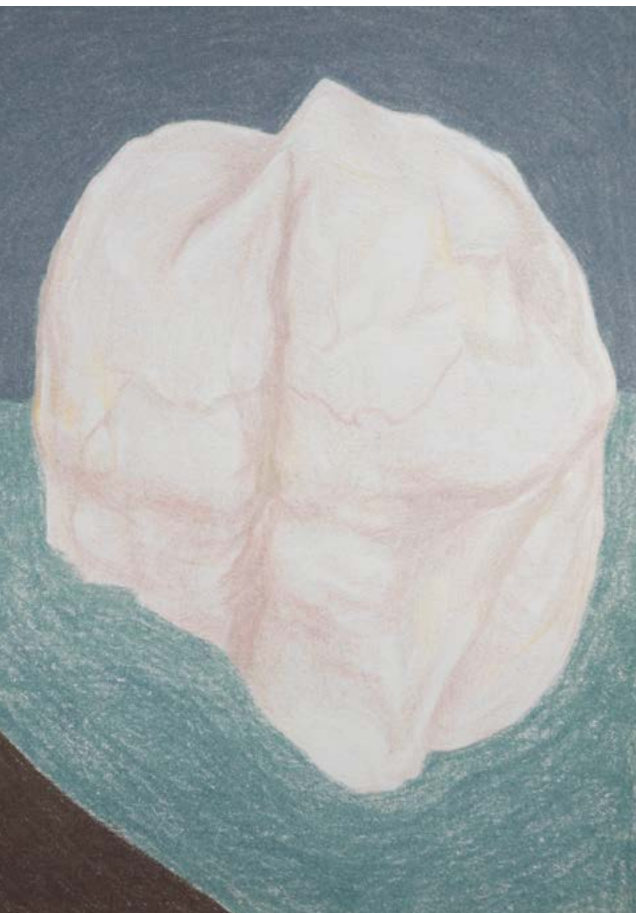
몇년 전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그 날도 세물포에서 즐마시고 새벽2시에 수봉공원 들어서 인하대쪽으로 넘어가는데 기분이 좋은 새벽이었습니다











리뷰 & 그룹인터뷰 미리 보기

송유경

인터넷 서치를 통해 가상의 수봉공원을 만들다보니, 거리감이나 그 땅의 질감 같은 것이 삭제된 채로 건축물만 남아서 수봉공원이 진짜 존재하지 않는 공간처럼 느껴지는 점이 기이하면서 재미있었다.

가상환경 영상 작업을 처음 시도해 보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해나갈지 고민이 되고, 또 그런 고민이 즐겁다. 사실 보통 동네 사람일수록 구조물에는 관심이 없기 마련인데, 인터넷으로 서치하면 건축물 위주로 검색 결과가 나오다 보니, 가보지 않은 가상 수봉은 건축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양승욱

다른 팀원 분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던 중, 수봉공원에 관한 개인적인 기억들을 리서치하고 싶어져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수봉공원 괴담에 흥미가 생겼다. 이 괴담들은 어쩌면 수봉공원뿐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공원에 적용해보아도 이상할 것 같지 않아 두 요소를 섞어보았는데 생각보다 무섭고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온 것 같다.

이권형

다른 작가들이 던져주시는 아이디어나 소스들이 새로우면서 구체적으로 사운드 작업에 적용할 만한 것들이었고, 나는 그 소스들을 자연스럽게 사운드와 리듬에 적용하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그렇게 작업했고, 그 자체로 흥미로운 게 나왔다고 생각한다.

임정서

이번 협업은 각자 본인의 것을 하고 이를 수봉공원이라는 접점으로 만나게 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각자 탐구하고자 하는 것에 우선 포커스를 두고, 그를 발전시키면서 함께 중첩되는 교차점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다. 같이 하나를 만들자고 시작하고 거기서 줄기를 파생시키는 것과 다른 프로세스라 생각된다.

허 호

작품으로 만들었던 지점과 다른 작가들이 접근한 지점이 자연스럽게 겹치고 대비되는 게 재미있었다. 특히 내가 수봉공원 안에 주목받지 못하는 바위에 관해 그랬다면, 유경 작가는 수봉공원을 가상으로 제작하면서 인공폭포 같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들어가고 이름 모를 바위들은 모두 삭제되는 지점이 흥미로웠다. 그래서 서로 자연스레 보완되며 대비되는 지점이 생기는 게 좋았다.

간단한 팀 소개와 각자의 작업을 소개해주세요.

송유경 : 저는 회화와 퍼포먼스처럼 다른 결의 매체를 동시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시간성이 다른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소수자에 대한 것, 여성에 대한 주제나 제의적인 주제에 관심이 있어요. 이번에도 퍼포먼스 형식으로 작업하려다가 방식을 바꿔서 '유니티'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D로 게임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배회하는 영상작업을 했어요.

허 호 : 회화를 그리고 있고요. 전시나 공연 만드는 것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양승욱 작가와 아티스트 콜렉티브 '살친구' 라는 팀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소외되고, 죽어가고, 늙어가고, 또 오해되는 것들과 버려진 폐허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수봉공원 작업에서도 수봉공원 안에서 존재하고... 뭐라 그래야 하지. 공원 안에 기념비가 모여있는데, 사람들이 기념비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여기고) 그리고 기념비에 관한 설명을 찾아

보지 않으면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 존재하는데 잊혀진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평소에도 이런 태도로 작업을 이어가려고 해요.

양승욱 : 저는 사진으로 이것저것 작업하고 있어요. 평소에 드러나지 않는 것과 지나치는 것들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진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영상을 찍고, 수봉공원과 근처에 있는 동네에 대한 괴담을 찾아봤어요. 인근 초등학교들이 수봉공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괴담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수봉공원에 자주 방문하지 못해서 제가 사는 동네의 것들을 영상으로 찍고 수봉공원 괴담을 입히는 작업을 했어요.

송유경 : 이권형 작가는 싱어송라이터로 음악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유일하게 수봉공원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작업에는 개인적인 측면보다 거리를 뒀서 바라보

고자 하셨어요. 임정서 작가는 일상의 순간들을 영화적인 순간으로 바꾸는,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퍼포먼스나 영상 같은 매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요. 개인이 바라본 수봉과 켜켜이 쌓인 땅의 시간들과 같이 '시간의 중첩'을 중심으로 작업하였고, (마지막에) 편집을 진행해주셨어요.

‘수봉과 임호양송이’ 팀은 다양한 매체의 작가들이 모였어요. 공원의 일반적인 속성. 그러니깐 심 혹은 만남의 공간, 추억이 쌓인 공간이라는 성격보다는 ‘망배단’, ‘실향민’, ‘소외된 공간’과 같은 키워드에 초점을 두셨죠. <2020 도화가압장>의 주제 선정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미지들이거든요.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가상의 3D로 구현했을까요?

송유경 : 실향민, 제의적인 것, 민속신앙에 원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수봉공원의) 망배단에 더 관심이 갔어요. 공원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갔던 곳이 망배단이에요. 망배단은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데,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조깅을 하는 모습이 (일종의) 제의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것과 실제 공원의 차이가 흥미로웠어요. 가상 수봉을 만들 때 인터넷에서 찾은 평면 이미지를 참고했는데요. 평면의 이미지에서는 땅, 하늘, 바위, 거리, 시간이 전부 삭제된 채로 구조물만 남게 되는데, 그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실제와 가상의 공원은 차이가 컸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수봉공원인가?’ 생각할 정도로 다른 공간이 되는 것을 보았죠.

가상 속에서 보이는 수봉공원과 (수봉공원의) 신화적인 이야기에도 관심이 갔어요. 재밌었던 점은 이권형 작가의 경우 신화적인 측면에 관심이 간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권형 작가와 수봉공원의 거리가) 가깝다보니 공원이 일상적인 사람들에게는 구조물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봉공원을 잘 모르는 사람은 건축물이나, 공원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차이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떠돌다 왔다’는 수봉공원 신화 이야기에서 착안해서 물을 많이 사용했어요.

허호 작가는 ‘엉덩 바위’나 ‘현충탑’ 같은 것들을 작업 소재로 삼으셨어요. 특정 오브제들 중에서 특히 흥미가 가는 것이 있었을까요? 혹은 프로젝트의 주제인 ‘수봉공원’에서 영감을 받은 오브제가 있다면 그것도 궁금하고요.

허 호 : 저는 리서치를 하러 갔을 때 인공폭포가 크게 다가왔어요. 돌을 깎아서 만들었거나 자연스럽게 보존된 자연물일 줄 알았는데요. (락카칠 된 바위가) 인공적인 테마파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인공폭포 앞에는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 ‘엉덩이’처럼 보이는 바위가 있어서 ‘엉덩 바위’란 이름을 붙였어요. 처음엔 농담으로 이야기하다가, 후에 팀원들이 ‘엉덩바위’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한 번 그려볼까?’ 하

고 그린 것도 있어요.

바위를 그리게 된 건 수봉공원에 있는 건축물, 특히 수봉 진지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진지를 없애고 돌로 진지 형상을 만든 것만 남아있다는지, 기념비가 한 곳에 몰려있는데, 그게 한 곳에 모아 두었던 생각이 들고 보존을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몇 개는 전혀 정보를 알 수 없고 (정보를) 알려면 인터넷에서 대조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 기념비들이 이상한 한편,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념비들은 어디를 가도 존재하고 딱히 ‘수봉공원’ 했을 때 기념비가 떠오를 것 같지 않았어요. 그걸 다 보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엉덩 바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봉공원 하면 ‘엉덩 바위’가 생각이 나요.

양승욱 작가는 괴담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이 수봉공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했다고 하셨죠. 어떤 시선으로 작업했는지 궁금해요.

양승욱 : (공원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퇴근길 혹은 집에 가는 길에 놓여 있는 공원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괴담들은 대부분 밤에 일어나잖아요. 제가 살던 동네도 밤에 공원을 거쳐야 집에 간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괴담이 하나씩 있었어요. 수봉공원을 조사하다 보니 괴담 몇 개를 발견해서 조금 더 찾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수봉공원만이 아니라 다른 공원에 대입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사는 동네를 배경으로 갖다 붙여서 작업했구요. 많은 괴담 이야기에서 ‘하원·하곡길’, 아니면 ‘술 먹고 귀가하는 길’ 이런 내용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했어요.

수봉공원의 괴담 중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괴담 하나만 알려주세요.

양승욱 : 생각나는 것은 수봉공원의 계단 옆 풀숲에서 괴생명체를 봤다는 이야기에요. 부모님께 이야기했더니, 예전에 (수봉공원 인근이) 한센병 환자들이 살던 곳

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환자 중 남아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인가?’ 싶어서 찾아봤는데요,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괴담이 어디까지가 진짜고,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들은 그대로 (작품 속) 스크립트에 넣었어요.

이권형 작가가 바라던 ‘노래비’를 (가상의 수봉공원에) 세웠고요. 이 가상의 공원이 ‘코로나19’와 언택트 시대를 강하게 반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화적인 공간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이 가상의 수봉공원 속 여행자로서 어떻게 공간을 맞이해야 할까요?

송유경 : 우선 임정서 작가가 “SNS를 많이 하고, 줌(Zoom)을 통해서 회의하고 일상과 떨 수 없는 관계가 된 모든 것을 아우른 것이 수봉공원이다” 라고 하셨죠. 원래의 수봉공원 자체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이기도 하고요. 직접 ‘유니티’

라는 톨로 작업을 했을 때, (게임 속 유저는) 인공폭포를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인공폭포를 올라가서 지나가야만 현충탑이 보인다고, 그곳을 올라가는데 실제와 다르지만 그런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간다고, 탑을 오른다든가 그런 부분이 영상 속에 짧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재미있었어요. 또 (이권형 작가의) 노래비를 세웠을 때, 노래비를 거기서 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인가짜인지 사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요소를 넣을 수 있는 점이나, 그렇지만 사실 제가 잘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차이 안에서 흥미로운 지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작업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작업을 하겠다’는 목표는 없었지만,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제한 속에서 작업하다 보니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요.



인터뷰 전체 영상은 <2020 도화가압장> USB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

두 번째 수봉공원



제



| 그룹 명 |

김윤현, 오헬렌, 최솔

| 참여 예술가 |

김윤현, 오헬렌, 최솔

| 작품 명 |

무제

| 작품 길이 |

00:03:00 / 00:03:00 /
00:04:00 / 00:05:00

| 진행 장소 |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대연습실

| 작품 형태 |

공연

| CREDIT |

사운드_오헬렌, 오&최&김

사운드 퍼포먼스_최솔

움직임_김윤현

| 작품 내용 |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한 우리는, 각자의 속도와 리듬으로 수봉공원을 올랐다. 제목을 정하지 않은 채로, 발표의 형태와 그 형식은 가장 마지막 순서였다.

처음부터 정상을 가려는 마음이 없었다. 이곳이 처음인, 낯선 이방인의 역할이 내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 같았다. 끝까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피상적인 이미지를 만들기로 했다. 산을 오르내리고, 앞뒤로 힘차게 팔을 뻗으며 큰 원을 그리며 같은 자리를 맴도는 사람들, 녹슨 운동기구에서 나는 규칙적인 소리에서 느낀 생명력을 표현했다. (오헬렌_사운드)

공원에서 매미 소리를 녹음하고 있었다. 비가 조금씩 오다가 한참을 퍼붓고 그쳤다. 녹음한 소리를 다시 들어보는데 매미 소리인지 빗소리인지 차가 지나가는 소리인지 모를 소리들이 담겨 있었다. 공원이라는 장소에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여러 소리들이 머물러 있다가

지나간다. 공간을 채웠다가 사라진다.
내가 공원에 가는 목적은 쉽다. 공원에 들어서는 순간, 나 또한 여러 존재들과 알 수 없는 소리들 사이에서 잠시 쉬어간다. (최술_사운드퍼포먼스)

우리는 불안과 걱정 그리고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간다. (김윤현_움직임)

| 작품 배경 및 목적 특이사항 소개 |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부터 멋있어 보였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은 아는 만큼만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욕심이 조금 줄었다. 딱 세 번 수봉공원에 올랐다. 제물포역 쪽에서 술과 함께 걷다가 모기에게 사냥 당하고 수풀 사이에서 흐릿하게 들렸던, 낯 소리를 기억한다. 북이 짝고 강렬한 박으로 끊어질 듯 이어졌고 그 사이사이를 구슬프나 여리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가 마치 춤추듯 움직였다. 흥얼거림에 가까웠다. 두 번째는 도화역에서 내려서 가압장을 거쳐 인공폭포 위 수없이 이어진 계단을 걸었다.



상모를 돌리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 멀어서 들을 수 없는 소리였지만, 웬지 그 기다랗고 흰 천 자락이 바람을 따라 내 뺨을 찰싹찰싹 아프지 않게 때리는 듯했다. 세 번째는 정상까지 올랐다. 녹슨 운동기구를 고치는 손들이 분주했다. 이곳을 오갔을 많은 사람들과 비바람에 녹슬고 낡아서 아프다고 앓는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DoDoom'은 일부러 한글로 표기하지 않았다. 읽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불려지는 게 좋았다. 나는 돌움이라고 읽는다. 까치발을 세우고 저 너머 뭔가를 보려는 의지가 담긴 몸짓이다. 아직 수봉공원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급하지 않게 내가 받은 첫인상을 풀어보려고 했다. (오헬렌)

내가 공원에 가는 목적은 휴식이다. 공원에 앉아서 주변을 관찰하고 살피다 보면 마치 내가 공원이 될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 각자 다른 목적으로 와서 공간을 채웠다 사라지고, 동시에 소리 또한 머물다 사라지는 공간. 공원.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주한 소리들을 채집

했고, 다시 들었을 때는 그 모든 소리들이 뒤죽박죽 섞이면서 서로 비슷한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다. 흥미로웠다.

공원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매미 소리, 차 소리, 빗소리,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 등 악기 연주와 함께 섞고 배열해보았다. 출처를 모를 여러 소리들이 뒤영기자 이름 없이 공원을 찾아와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최솔)

처음 수봉공원을 보고 들었던 생각은 휴식이었다. 공원에 온 사람들은 나름의 방식을 찾아 평온한 얼굴로 자기만의 쉼을 누리고 있었다. 나 또한 가슴이 답답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공원에 간다. 걷고 또 걷다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기도 한다.

움직임에서 가방은 이러한 과정을 상징하는 오브제이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느꼈을 삶의 무게이기도 하다.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불안하

고, 우울했던, 나 같았던, 우리 같았던 사람과 무대 위에서 마주해보았다.

(김윤현)









리뷰 & 그룹인터뷰 미리 보기

김운현, 오헬렌, 최솔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들려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완성된 결과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풀어내어보기로 했다. 그래도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래도 무대 위에 서는 것이 익숙한 우리의 숙명 같았다. 무대 위를 우리 셋의 숨으로 먼저 채우기로 했다. 살면서 막힌 숨을 몰아 쉴 곳을 찾는 일은 중요하다. 우리 셋은 그 지점에서 모였다. 밀물과 썰물처럼 흔적 없이 공간을 채우고 사라지는 일이 매순간 일어나는 곳이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된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까. 가방 속에 특별한 물건을 넣지 않았다. 내가 평소에 연습실에 갈 때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이다. 늘 같은 가방을 들지만 가끔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 같은 기분이 들었다.

첫 번째 씬인 <DoDoom>의 제목이 인상 깊어요.

안에서 리듬을 찾아가는 퍼포먼스를 구상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엔 저희 3명의 퍼포머의 존

오헬렌 : 그게 실은 일부러 영문 표기로 작성한 것도 읽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발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성했어요. ‘돔움’, ‘두돔’ ‘두움’ 등 다양하게 담았어요. (웃음)

재보다 숨을 쉬고 내뿜는 행위가 조금 더 강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퍼포머들은 그림자 속에 존재가 잊히고, 그림자의 움직임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연출했어요. 마지막 풍선을 터트리는 장면은 제 다음 장면이 술 장면으로 넘어가는 극적인 효과인데요.

수봉산을 ‘도시에 숨을 불어넣는 심장’으로 표현한 점이 인상 깊습니다. 심장을 표현하기 위한 오브제로서 ‘풍선’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식가들이 음식을 먹고, 다음 음식을 먹기 전 생수로 입을 한 번 행구고 먹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장치로 쓴 것 같습니다. 아, 썼습니다. 제가 했죠. (웃음)

오헬렌 : 수봉산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내리고 있었고, 운동기구들을 사용하면서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현충탑 주위를 원을 그리며 운동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수봉산이 거대한 초록색 심장 같은(?) 움직임이나 비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풍선에 숨을 불어넣고 빼고, 그



인터뷰 전체 영상은 <2020 도화가압장> USB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룹 명 |

없음

| 참여 예술가 |

김예림, 남달리, 주영상

| 작품 명 |

수봉하루

| 작품 길이 |

00:15:00

| 진행 장소 |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대연습실

| 작품 형태 |

공연

| CREDIT |

무용수_김예림, 주영상

건반, 작곡, 편곡_남달리

음향 엔지니어_남한얼

| 작품 내용 |

우리는 계속해서 일상을 살아간다. 진
행형인 삶 속에서 여유를 찾기란 쉽지
않다. 공원은 누구에게나 여유를 선사
하는 공간이다. 일상과 여유 속에 무심
코 지나쳤던 작은 소리들이 모여 하나
의 작품이 된다.

| 작품 배경 및 목적 특이사항 소개 |

작품의 큰 틀은 일상이며, 그 안에서
누군가의 일상과 수봉공원에서의 일상
을 나타내고자 했다. 리서치 워크숍을
통해 '사운드 스케이프'를 이용한 사운
드를 수집하였고 그 사운드 위에 멜로
디가 어우러지며 하나의 음악이 만들
어졌다. 또한 무용수들은 수봉공원에
서 이루어지는 소소한 일상들을 관찰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파생된 움직임
을 리서치하며 움직임으로 풀어냈다.

무용수뿐 아니라 음악작업을 한
연주자도 무버로서 무대에 올랐다.









리뷰 & 그룹인터뷰 미리 보기

김예림, 남달리, 주영상

첫 그룹회의를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 주제를 정해야 했다. 그렇게 생각난 것이 <사운드 스케이프 워크숍>이었다. 각자가 수집했던 사운드들의 특징이나 어떠한 사운드를 담았는지 물어보았고 그렇게해서 공통점은 일상, 걷기 두 가지의 단어가 채택되었다. 수봉공원에서의 일상과 걷기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소한 일상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작업을 이어나갔다.

우선 수봉공원으로 답사를 갔다. 여러 번 답사를 갔지만 늘 그렇듯 바둑을 두는 할아버지들이 계셨고, 과자를 나눠 먹는 사람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기구 근처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등 여러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공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만의 역할이 있었다. 예를 들어 바둑을 두는 공간에 월요일은 A, B 할아버지가 바둑을 두고 있고, 화요일에는 C, D 할아버지가 바둑을 두고 있다. 사람은 바뀌어도 그 공간에서 바둑을 두고 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또한 과자를 나눠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고, 스쳐지나갈 수 있었던 장면을 풀어내보고 싶었다. 그렇게 바둑소리와, 책을 넘기는 소리, 발 소리, 바람소리 등 일상의 사운드에 집중해 음악작업을 이어나갔고, 그 사운드를 이용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수집해온 수봉공원의 일상 소리를 이용해서, 연주자는 그 소리들을 이어붙이고 자르고 편집하는 작업을 해서 일정한 리듬감이 느껴질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리듬에 비트를 입혔다. 수봉공원에서 일상적으로 들리는 소리를 그대로 차용해서 삽입하기도 하고, 또 수봉공원의 풍경에서 느낀 감정들로 멜로디와 사운드를 입혀서 음악을 만들었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음악과 춤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먼저 완성되고 다른 것이 맞춰가는 게 아닌, 처음 각각 모티브를 만들고 서로의 음악과 움직임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면서 발전시켜갔다.

리서치 워크숍을 진행했던 때가 여름인데,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 중 '사운드 스케이프 워크숍'에서 <여름의 낮과 밤>이라는 작업물을 공유하셨는데요. 이번 작업에서도 계절이나 시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김예림 : 우선, 사운드 스케이프를 제출했을 때 특정한 계절의 낮과 밤, 특정한 시간을 나타냈어요. 근데 이번 작품에선 계절의 시간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루의 시간을 나타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품이 표현될 것 같아요.

작품 도입부에서는 두 무용수가 과자를 먹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청각 요소로서의 본 장면이 갖는 연출의도가 궁금해요.

주영상 : 음... 저희가 우선 이 작업을 통해 수봉공원의 일상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공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친구와 과자나 맥주를 마신

다든지 벤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 꼽아서 과자를 선택했어요. 리서치 워크숍에 참여했을 때 작업, 움직임, 영상, 사운드 등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냈던 게 사운드 스케이프를 통해 소리를 녹음하고, 과자 씹는만 아니라 작품 전체적인 요소 중에서도 음악 작업할 때 많이 사용했어요. 그걸 앞부분에서 과자를 먹는 행위만이 아닌, 소리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리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수봉하루>의 키워드는 '일상'이 아닐까 합니다. 남달리 작가의 경우, 일상을 소재로 한 개인 프로젝트도 꾸준히 작업하고 계신데요, 새로운 장르의 창작자들과 협업하여 그런 '일상'은 어땠나요?

남달리 : 제가 발매한 음원들이 제가 경험한 일들 위주로 쓰긴 했어요. 일기를 쓰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멜로디나 가사 같은 걸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

고 또 나누고 싶었어요. 그걸 다 발매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저의 소소한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저의 스타일과 색깔로 표현하고 싶어서 개인적인 프로젝트도 유튜브에 간간히 올리고 있어요.

셋의 팀워크에 있어서 스파크가 튀는, 화학작용이랄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생겼을까요?

김예림 : 시너지 효과? 뭐라고 해야 하죠? 우선 기억에 남는 것은 줌(Zoom)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처음 대면할 때 줌 안에 있던 사람이 그대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웃음) 들어서, 되게 줌이랑 다를 줄 알았는데 같아서 편안하게 첫 대면이 이루어져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용수가 원하는 느낌이나 멜로디를 박자 같은 경우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남달리 작가가 편하게 푹푹 작업을 해주셔서 거기에 계속 놀랐거든요. "어 이

게 이렇게 된다고?"(웃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인터뷰 전체 영상은 <2020 도화가압장> USB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봉공원

여



백



| 그룹 명 |

자연학습원

| 참여 예술가 |

김민관, 김지효, 이수빈, 정민수

| 작품 명 |

여백

| 작품 길이 |

00 : 15 : 25

| 진행 장소 |

수봉공원

| 작품 형태 |

영상

| CREDIT |

퍼포머_ 김민관, 김지효, 이수빈, 정민수

영상음악_ 이수빈, 김지효

영상촬영 및 편집_ 김민관

안무_ 정민수

사진_ 김민관

| 작품 내용 |

‘여백’은 공간에 대한 부분이고, 시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다. 수봉공원은 시간을 내서 어떤 시간을 체험하러 온 사람들의 시·공간이다. 채워지고 비워진다. 또 채울 수 있고, 채우면서도 비워지는 공간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착안해 영상 안에 팀원들의 연주, 움직임들을 담아내고자 했다. 그리고 여백에 대한 의미를 『어린 왕자』라는 소설의 문구와 연결지어보고자 했다. 촬영은 수봉공원 내부에 있는 특색 있는 다양한 공간에서 악기와 행위 및 움직임을 활용하여 공원 분위기에 맞게끔 촬영하고자 했다.

또한,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전과 같이 자연을 마음 편히 누릴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따라서 공원에서 연주한 악기들(가야금, 우쿨렐레, 멜로디카, 리코더)은 모두가 현장의 소리와 함께 조화롭게 뒤섞인 형태인데 이를 통해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자 했다.

악기별로 살펴보면, 가야금 연주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수봉공원의 다양한 모습을 느끼고 음악이고, 두 번째 곡은 해질녘 수봉공원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문환적인 앰비언트 음악이다.

하계 자연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시간을 생각하며 표현해보았다. 우쿨렐레의 경우 현장에서 너무 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뮤트된(소리가 작은) 주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멜로디카는 촬영을 진행한 장소(놀이터) 성격에 맞게끔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주고자 했다. 참고로 놀이터는 과거 수봉공원에 존재했던 놀이공원의 터이기도 한데 이를 환기시키기 위해 3/4 박자로 이루어진 경쾌한 음악을 연주했다. 리코더의 경우 악기를 연주하는 개념이 아닌 일종의 오브제로서 사용했다. 초등학교 때 누구나 불러봤을 법한 익숙한 멜로디를 연주하였고, 이를 통해 촬영 장소였던 자연학습장의 분위기를 잘 살리고자 했다.

촬영이 끝나고 편집을 진행할 때 영상 음악을 두 곡을 작곡했다. 첫 번째 곡

은 정민수 선생님의 안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전자음악 계열의 앰비언트 음악이고, 두 번째 곡은 해질녘 수봉공원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문환적인 앰비언트 음악이다.

| 작품 배경 및 목적 특이사항 소개 |

자연학습원의 책방에서 여러 책을 뒤적였고, 테드 창 의 소설만 작업의 윤곽을 잡는 데 어렵פות한 심상을 주었을 따름이었다. 반면, 현장 촬영에 모두가 도착한 날, 『어린 왕자』가 있었고, 거기에 처음 정민수 안무가님이 제안한 ‘휴식’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다른 의미로 바꾼, 이 작업의 제목인 ‘여백’에 어울리는 문장이 바로 눈에 들어왔다. 인간이 고속 열차를 타고 어딘가로 급히 가고 있다는 이 문구는, 우리가 가면서 놓치고 있는 삶의 순간, 풍경, 의미 모두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이 문구를 통해 각 장소의 작업이 가진 우연적으로 발생하고 즉흥적으로 탄생한 장면과 퍼포먼스를 어떤 말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실제 그것



"사람들처럼"
 "이름창자가 말했다.
 "금방 열차를 타고 떠나면서도
 그들이 찢으려 가는 게 뻔지도 몰라
 그래서 그들은 서두르고 초조해하며
 제자리에서 땀도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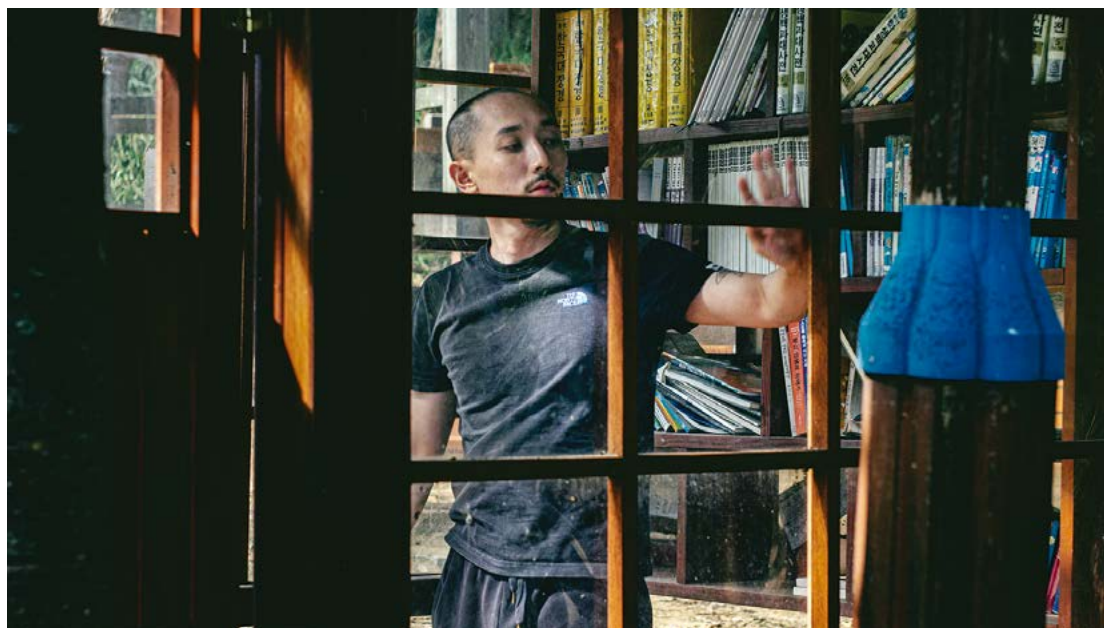
이 가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로 언어로부터 시작하는 개인적 작업의 차원에서, 영상으로 수렴하는 작업인 만큼 우리가 다룰 수 있고 잡고 갈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정도였다. 『어린 왕자』의 구문이 들어간 것은 이 작업을 일반적으로 알 수도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언어의 세계와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신비의 베일을 벗는 바 있다. 또 그 장면들, 곧 연주, 풍경 이미지, 움직임, 존재 등의 난해함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반면, 그 외에 언어로 포획할 수 없는 힘이 여전히 영상에 잔존한다. 그러기에 이 작업이 의미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모두의 작업일 수 있다.

작품을 만들면서 가장 큰 영감과 배경이 된 곳은 수봉공원이다. 수봉공원에서 느끼고 생각한 지점을 팀원들과 나누면서 공감했던 부분도 있었고, 새롭게 느끼게 된 지점들도 있었다. 우리 모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수봉공원의 모습들과 새롭게 알게 된 수봉공원의 모습을 모으는 방식을 각자 나름대로 취했었고, 이를 통해 작업의 밑바탕을 다지게 되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최대한 대면을 피하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티스트 4명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각자의 작업을 조화롭게 섞는 방식으로 방향성을 잡게 되었다. 그리고 추후에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백'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여백'을 통하여 각자의 작업을 묶게 되었다. 시간의 덕분에 작품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이전처럼 자연을 누릴 수 없지만 영상 속 화면으로나마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자 했다.

성을 잡게 되었다. 그리고 추후에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백'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여백'을 통하여 각자의 작업을 묶게 되었다. 시간의 한계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닌, 다소 즉흥성이 강하게 발현된 점이 불안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제법 실험적인 시도였다고 생각이 든다.







리뷰 & 그룹인터뷰 미리 보기

김민관

장소 특정 혹은 오브제가 있고 장소들을 돌아다니는 형식, 인덱스가 있어야 한다. 분류가 있어야 하고, 수봉공원의 어떤 시간, 어떤 장소 등 하나의 분류 체계가 있어야 한다.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내러티브가 발생할 수 있다. 극의 흐름은 아니겠지만, 동선에 따른 흐름을 갖는.. 참가자들과 발길 닿는 곳을 걸으며 각자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을 이야기하고 다음 자리에서 이를 실천해 유기적으로 각각의 장소에서 장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짧지만 폭발적인 장면의 응결이 인상적이었다.

김지효

화상회의 내용 메모_ 공원 내에서 촬영으로 결정 / 장소 4곳을 골라서 촬영을 진행하는데, 장소마다 리드하는 작가를 정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정민수

옴니버스식(각자 장소에서 출발해서 수봉공원으로 가는..), 다류식, 실험적 / 입구부터 장소를 나누어서 촬영 / 정상에서 낭독하는 과정이 있으면 정리가 될 것 같다.

이수빈

안산 순례길 / 세월호 관련 이야기, 관객=순례자로 표현, 순례자가 안산의 길을 걸으며 퍼포먼스가 중간 중간 갑자기 등장(노래, 연기), 묵념, 큰 광장에 모여서 참여자에게 꽃을 한 송이씩 나누어주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심이 되었던 공간이나 오브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정민수 : 중심 공간은 사실 없었고요. 그냥 장소 하나하나를 비중 있게 촬영했어요. 그리고 자연학습관의 책방이 인상 깊었어요. 되게 언밸런스 했거든요. 개구리 동상이 있는데 되게 기괴했어요. 그 개구리 동상이 있는 곳 가운데 딱하니 책방이 있고... 근데 사용은 많이 안 하시는 공간 같아요. 안에 들어가 보면 거미줄도 쳐있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인상 깊었고 작업할 거리가 많은 곳이었어요.

수봉공원을 어떤 음악적 요소로 표현했는지 궁금해요.

김지효 : 공간 기반 작업이 처음이라, 어떻게 공간을 해석하고 음악으로 만들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됐던 게, 첫째 주에 진행한 워크숍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특히, 조은희 작가님의

<사운드 스케이프 워크숍>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수봉공원에서 소리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소리를 들어보고, 여러 장소를 가보는 과정에서 해답을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실마리를 찾으면서 어떤 음악을 할지 구상이 되어 작업을 풀어갈 수 있었어요.

김민관 : 사실 음악을 주로 하시는 작가 두 분과, 안무하시는 분, 전 이제 영상을 하는, 네 사람이 만난 건데요. 각자 다른 장르의 참가자들이지만, 수봉공원이라는 장소에서 촬영했고. 수봉공원에서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저는 영상으로 충실히 담는 정도의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영상들이 작업 중이라 어떻게 종합될지 모르겠지만. 장소에서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는 즉흥적 측면이 강하고요. 미리 생각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녹여지는 걸 담으려 했어요.

(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 관찰자의 시점에서 다시 보는 셈이 될 텐데. 영상이 이어지고 종합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민수 작가가 말씀하신 자연학습관 책방에 가서 책들을 보고 영상을 아우를 수 있는 관점은 이야기가 있을지 생각해봤는데요. 『어린 왕자』라는 책 내용 중, 사람들이 고속열차를 바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봤어요.

사실 저희가 그룹 명은 안 정했지만 하나의 주제 정도는 잡고 가자는 의견이 모여서, 정민수 작가가 '휴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휴식의 의미를 담으며 공간까지 의미를 가져갈 수 있는 걸 생각하다가. 공간이 저희가 행위로 채우기도 하고... 공간이 여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목은 다시 정해야겠지만 '여백'이란 키워드로 작업했어요. 그래서 고속열차가 (바쁘게 살아가는 게 아닌) 여행을 위한 목적으로 달리는 걸로. 차원을 달리 생각하여 여유를 가지고... 그게 수봉공원에 대한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에 가깝겠죠...

『어린 왕자』라는 텍스트가 중반에 놓이며 다른 것들을 감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인터뷰 전체 영상은 <2020 도화가압장> USB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뷰

다음
약속하는
시간

<2020 도화가압장> 리서치 워크숍 중 나는 8월 26일에 '구성대본 제작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때 당시 나는 제주도에 머물고 있었고 몇몇 일정들이 코로나 재 유행을 이유로 하나, 둘씩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도화가압장 워크숍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설상가상으로 제주도에는 태풍이 불어와 바닷가 바로 앞 숙소에서 머물고 있던 나는 인터넷 연결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만났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지라도, 숙소 밖에서 태풍 때문에 높이 10m가 넘는 파도가 몰아치고 있을지라도, 만날 수 있었다. 비록 잔잔한 온라인 세상에서 가진 만남이었지만, 이날의 기억은 온라인 밖에서 사납게 펼쳐진 비현실적인 상황들과 맞물려 남아있다. 노트북 화면으로 보았던 참여 예술가들의 진지한 얼굴과 인천공연예술연합공간 직원들의 차분함과 집 밖을 휘감는 무서운 바닷바람 소리가 8월 26일 오후를 함께한 시간의 기억으로 남았다.

우리는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공간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이날 워크숍 대신 진행했던 강연의 내용은 공연 안에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담는가에 관한 이야기였다. 일정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었다면, 전날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했을 '지역 탐구 투어'와 '사운드스케이프 워크숍'에서 보았고, 들었고, 수집했을 재료들을 어떻게 시간과 공간 안에 녹여낼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했을 것이다. 우리



는 이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간과 공간을 공연 안으로 어떻게 들여와야 하는지 방법을 찾는 숙제를 해야만 한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이런 고민은 추상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끝이 날지도 모른다. <2020 도화가압장> 리서치 워크숍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이런 추상적인 고민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볼 수 있는 물꼬를 터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참여 예술가들의 작업물들을 보고 들었던 생각이다. 서로를 대면하는 시간은 적었지만, 소통하는 방법은 더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들이 보여준 작업은 모두 하나의 연출, 하나의 대본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골고루 사용하여 콜라주처럼 엮고 있었다. 하나의 매체를 중심에 놓지 않더라도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상대의 말을 기다려주는 법을 익혔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었다.

최근 들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성격의 작업들이 늘고 있다. 이런 작업의 대부분은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한 사람의 창작자가 자신만의 관점을 유지하며 작업 과정의 처음과 끝을 경험해보는 것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디자이너나 스태프를 넘어 작가가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급변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다른 장르와 협업 없이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든 지금, 작업 과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선택지가 없는 당연한 지점이다. 개인 작업이든, 공동 작업이든, 소통의 방법, 상대를 기다리는 시간은 간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2020 도화가압장>은 공동으로 공연을 만드는 예술가이든, 개인 창작을 주로 하는 예술가이든, 공연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장점이 많은 프로그램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다른 숙제가 하나 있다. 내가 했던 강연은 예술가가 자신의 작업에서 시간과 공간을 설정하는 방법, 관객을 만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작가가 문자화한 텍스트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운드, 미술, 몸의 움직임이 주재료가 되는 공연들이 관객과 관계 맺는 방식은 기존과 달라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즉, 관객이 어떤 체험을 가져가도록 할 것인가? 집단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적인 경험을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고민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많은 예술가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 스트리밍 이외의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관객에게 줄 수 있는 예술 환경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2021 도화가압장>에서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확실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답을 찾아내야 하기에 다음을 기대해 본다.



전 강 희

공연 드라마터그

-

쓰고 읽고 보고 만든다.

프로젝트를 마치며

모두에게 하고픈 말

송유경 / 양승욱 / 이권형 / 임정서 / 허호

워크샵이 비대면이어서 아쉬웠으나 새롭게 접근해보는 방식으로 느껴져서 다른 사고를 할 수 있었다. 타 장르의 작업자 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함께 흥미로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어서 다른 협업으로 연결되는 것도 기대된다. 도화가압장과 수봉공원 인천이 주는 느낌과 색채가 강렬하다고 생각했다. 이후에 보다 더 다양한 오프라인 워크샵에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분야가 다른 예술가들의 협업을 이끌어내주는 플랫폼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오헬렌

낮선 장소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주고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기존의 공간을 전복시키지 않고 역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된 인천공연 예술연습공간에서 앞으로 나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이 오고 가며 의미 있는 시간들이 쌓이길 기대한다.

최솔

같은 주제를 각자의 언어로 풀어내는 과정 중에, 서로 비슷한 지점을 발견해서 재미있었다. 워크샵과 결과 발표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다른 참여자들과의 교류가 아쉬웠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좋은 공간과 사람들을 알게 되어 좋았다.



김윤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프로젝트 진행 그리고 과정을 공유하면서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된 팀원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을 고민하고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김예림 / 남달리 / 주영상

여러 분야에 있는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같은 프로젝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흥미로움을 느꼈다. 또한 새로운 인연을 만나 새로운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하다보니 어려움도 있었고 시간 또한 부족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결과물에 집중하기보단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서 더욱 뜻 깊은 프로젝트였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프로젝트가 형성되었으면 좋겠고, 또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하고 싶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예술가들이 시간이나, 직접 만나 작업하지 못함에 어려움을 겪었을 테고, 코로나19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히며 작업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수빈

한 달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혹한 환경 속에서 진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인천문화재단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다. 최초에 기획했던 음향설치작품을 시도해보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지만 영상 촬영을 진행했던 과정도 여러모로 신선한 경험이었다.

김민관

모두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각자의 역할을 찾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진행했고, 평소의 작업 방식과 다른 음악과 안무의 다른 접근의 시각을 볼 수 있어 좋았다.

김지호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팀원들이 정해져서 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팀 내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기 십상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영역을 충실히 하여 좋았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넉넉하진 못하여 작품에 대한 아쉬움은 크게 남는 것 같다. 분명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팀원분들과 함께 하였다고 생각되어 아쉬움이 더 크지 않나 싶다. 쉽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다시 팀원 중 누군가와 다른 작품을 만들게 되는 날을 그리며 프로젝트를 마치게 되었다.

정민수

짧았던 프로젝트 기간이 보다 완성도 있는 작업물보단 즉흥성이 더 짙은 작업물이 만들어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실험적이었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통해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어서 좋았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워크숍이나 작업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점이 조금 아쉬웠다.

프로젝트 참여 예술가



송유경

2020 7th공포전 <지구인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 병과 식탁> 단체전, 인디아아트홀 공
 2020 <개관 프로젝트:동굴 시물레이션>, 예술청
 2019 <메서나폴르>게릴라 퍼포먼스, 메세나폴리스
 2019 잇고, 잇고 프로젝트 <별들의 마음> 단막극, 배우
 2018 <구멍에 닿지 않는 한 걸음> 개인전, 인디아아트홀 공

양승욱

[개인전]
 2020 <Past Toys>, 쇼앤티텔
 [단체전]
 2020 <qademic-공포>, 연무지개, 오손도손
 2020 <파랑,새>, 공간 서울
 2020 7th공포전 <지구인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 병과 식탁>, 인디아아트홀 공
 2020 <新氣流,信じる, 신기루>, 26°C 핫/곳

이권형

[음반]
 2020 정규 2집 <터무니없는 스텝>
 2019 컴필레이션 <모두의 동요>, 기획 및 참여
 2018 컴필레이션 <인천의 포크>, 기획 및 참여
 2018 정규 1집 <교회가 있는 풍경>
 2018 컴필레이션 <서울, 변두리>, 기획

임정서

2020 7th공포전 <지구인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 병과 식탁>, 인디아아트홀 공, 기획
 2020 제 20회 서울 뉴미디어 페스티벌, 영화 상영
 2019 <내일의 섬들>, 퍼포먼스
 2019 <Living with Water> 아트앤사이언스페어, 전시

허 호

2020 <Delivery Box>, 26°C 햇/곳, 기획전 참여
 2020 <qandemic-혐오>, 연무지개, 오손도손, 기획전 참여
 2020 7th공포전 <지구인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 병과 식탁>, 인디아트홀 공, 단채전 참여
 2020 <新氣流, 信じる, 신기루>, 26°C 햇/곳, 전시 참여
 2019 <두개의 가로선은 길이가 같다>, 무악파출소, 기획전 참여

김윤현

댄스컴퍼니 브레이브맨 팀원
 2020 크리티크스초이스 댄스페스티벌 정철인 안무 <우버맨쉬>, 출연
 2020 뉴욕하크니스댄스 페스티벌 정재우 안무 <퍼펙트 스킴>, 출연
 2019 아르코 파트너 박순호 안무 <경인>, 출연
 2019 융복합예술축제 PADAF <Illusion>, 안무 및 출연 외 다수

오헬렌

[공연]
 2019 동네방문프로젝트, <우리가 갈게요> 연남동, 해방촌, 성북동, 가평동, 청라동, 상수동
 2019 <코끼리 똥, 거대한 쓸모>, 콘텐츠문화광장
 2019 <Summer>, 뮤지스땅스
 [음반]
 2020 Digital Single, <413>
 2020 오헬렌&최솔 EP, <OH>
 2020 2019 무소속프로젝트 컴필레이션음반, <Save for the Rainy Day>

최 솔

2010~ 현재 솔솔부는 봄바람 활동
 2019 오헬렌&최솔 활동
 [음반]
 2020 오헬렌&최솔 EP <OH>
 2012 솔솔부는 봄바람1집 <봄이 왔어요>

김예림

2012 솔솔부는 봄바람 EP <잇을 수가 없잖아>
 2011 솔솔부는 봄바람 <그런 날엔>
 2020 제27회 신인데뷔전 신인상 수상작 <비버진 소리>, 안무 및 출연
 2019 u-dance festival <의미 없는 시선에 ' ' >, 안무 및 출연
 2019 SCF dance nova <우리는 삼키고 뱉었다. 향아리에>, 안무 및 출연

남달리

[음반]
 2020 EP음반 <요술캠퍼밴>
 [수상]
 2018 플랫폼 창동 61 로고송 공모전, 대상 (남남매)
 2017 영호남 청년문화예술 엑스포 공모전, 노래부름 대상 (남남매)
 2017 헌법사랑공모전, 노래부름 금상 (남남매)
 2017 자연드림 콘텐츠 공모전, 노래부름 은상
 [공연 및 프로젝트]
 2020 시흥 갯골 랜선 어쿠스틱음악제
 2020 화성 라이징스타 경연대회 Top12 선정
 2020 대구 수성못 뮤지컬 프린지 페스티벌 공연팀 선정
 2020 부산 청년문화박람회 B페스타 공연팀 선정
 2020 안산 청년예술인 동고동락 마중물 프로젝트 선정
 2020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 오프밴드 선정
 2020 인천 서구 야외상설공연 우리동네 예술무대
 2020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인천, 경기지역 공연팀 선정
 2020 성음아트센터 온라인콘텐츠제작지원 선정
 2017~2018, 2020 호주 Melbourne, Adelaide, Alice Springs, Cairns, Brisbane, Sydney 버스커 활동 / 재즈다, 클럽 에반스 카페언플러그드, 카페야시시 등 연주활동 중

주영상

2020 Celebrity Series of Boston 박순호 안무 <유도> 출연
 2019 MODAFE 박순호 안무 <유도 2.0> 출연
 2019 아르코파트너 박순호 안무 <경인> 출연
 2019 제주 국제 댄스포럼 이해준 안무 <Butterfly Effect> 출연
 2018 생생춤페스티벌 이동하 안무 <GO 2.0> 출연
 2018 국제 춤 축제 연맹 아시아 본부 제6회 전국무용경연대회, 금상
 2017 MODAFE 이윤경 안무 <Coexistence> 출연

이수빈

2020 공연 <기타 등등>, 기획 및 작곡가 참여
 2020 The 4th Annual Research on Contemporary Composition
 Conference at University of North Georgia, 작품공모 당선
 2020 New Music Consortium at the University of South Florida,
 작품공모 당선
 영화 <은서>, <우산을 안 가지고 와서>, <대청소>, <사원증>, <공간의 끝>
 외 다수의 영화에 음악감독으로 참여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출강

김민관

[전시]
 2020 <마음을 둘로 나눌 것>, 인천도시역사관
 2019 <밤을 훑치는 손>, 무농갤러리
 2018 <서사의 곡물>
 2018 <밤의 두께는 밤의 길이를 상회하는가>, 회전예술
 2016 <너의 이름—서교>
 [퍼포먼스]
 2015 <너의 이름>

김지효

Gayageum Ensemble 'Hey string' 멤버
 [수상]
 정동극장 청춘만발 2018 올해의 아티스트 선정

제 10회 전주소리프론티어 프론티어상 수상

[활동]

<Sensation-감각의 발견> 공연

<Space in space> 공연

London, Southbank Center /K-music festival

Hey string 1집 <Salto> 발매

정민수

2020 92y 하크니스센터 정재우 안무 <Prefect Skill>, 출연
 2019 인천문화재단 바로그지원 선정작 댄스필름 <휴식>, 제작 및 출연
 2019 모노탄츠서울 <전화받는 사람>, 공동 안무
 2019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단 정철인 안무 <초인>, 출연
 2019 코리아댄스마라톤 인 불가리아 워터페스티벌 <Dive>, 출연
 2018 서울무용센터 댄스필름 프로젝트 Take# <심해어>, 출연
 2018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 선정작 <Dive>, 안무 및 출연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Web | appci.ifac.or.kr

Call | 032-868-9162, 9163

Address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2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 급수를 위해 설립되었지만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옛 상수도 가압펌프장을 새롭게 개조했다.
공연예술단체에게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고
예술가 네트워크 현장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한다.

프로젝트 정보

<2020 도화가압장>

2020. 5. ~ 2020. 9.

| 기획·진행 |

(재)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부 공연예술연습공간

| 기획 위원 |

김형민, 송주원, 신아리, 신재훈, 조은희

| 참여 예술가 |

김민관, 김지호, 김윤현, 김예림, 남달리, 송유경,
양승욱, 오헬렌, 이권형, 이수빈, 임정서, 정민수,
주영상, 최술, 허호

| 도움주신 분 |

전강희, 노기훈, 전윤환, 읍쓰양

| 영상 촬영 |


독립영화사B1

| 사진 촬영 |

독립영화사B1, 한에스라

| 조명 기술 |

최현주, 한에스라


인천문화재단 인천공연예술
연습공간

출판 정보

| 발행일 |

2020년 12월 21일

| 발행인 |

최병국

| 발행처 |

(재)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 중구 재물량로 195

T. 032 - 455 - 7100 / ifac.or.kr

| 저자 |

김형민, 송주원, 신아리, 신재훈, 조은희, 전강희,
김민관, 김지호, 김윤현, 김예림, 남달리, 송유경,
양승욱, 오헬렌, 이권형, 이수빈, 임정서, 정민수,
주영상, 최술, 허호

| 편집디자인 |

빌롱잉스

© 인천문화재단 2020

이 책에 실린 사진과 글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공공저작물입니다. 해당목적 이외의 사용은 발행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92678-53-7 (03680)



도

화

가

압

장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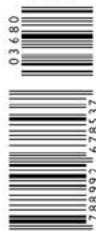
20

도화

가압장

20 20

비매품/무료



03460

9 788992 678337

ISBN 978-89-92678-53-7